

출장 보고서
2023. 9. 21. ~ 9. 26.
미국 마이애미

미국 경제교육협의회(CEE) 제62차 연차총회 참석 및 사례 발표

2023. 10. 20. (금)

송 인 호 경제정보센터 소장
박 진 채 시민사회교육팀장
박 지 연 전문연구원
김 영 인 전문연구원

I. 출장 개요

1. 목적

- 미국의 대표적인 민간 경제교육 단체인 경제교육협의회(CEE: Council for Economic Education)가 주최하는 제62차 연차총회*에 참석하여 경제교육 콘텐츠 및 방법론, 경제교육 동향 등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우리나라 경제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사점 도출

※ 미국을 포함한 각국의 경제·금융 교육 관련 기관과 학계에서 참석하는 포럼

- KDI는 연차총회의 발제자로 참여해 ‘A Day with the Money Monster: Economic Picture Book Classes for the Developmentally Disabled and Students with Learning Difficulties’ 세션에서 KDI가 개발한 경제교육 그림책 『용돈깨비와 함께한 하루(A Day with the Money Monster)』를 활용한 수업 사례를 소개하고, 국제 경제교육 전문가들과 협력 방안 협의

2. 기간 및 장소

- 기간: 2023. 9. 21.(목) ~ 2023. 9. 26.(화)

- 장소: 미국 마이애미 Fort Lauderdale Marriott Harbor Beach Resort & Spa

3. 출장자 및 출장 일정

- 출장자: 송인호 경제정보센터 소장 외 3인

순번	이름	소속	직위
1	송인호	경제정보센터 소장실	경제정보센터소장
2	박진채	경제정보센터 경제교육실 시민사회교육팀	시민사회교육팀장
3	박지연	경제정보센터 경제교육실 교육기획팀	전문연구원
4	김영인	경제정보센터 경제교육실 학교경제교육팀	전문연구원

□ 출장 일정

일자	시간		일정
2023-09-21(목)	KST	09:20	인천국제공항 출발
	UST	15:47	마이애미 국제공항 도착
		18:00 ~ 20:00	Reception(CEE Network & NAEE) 참가
2023-09-22(금)	UST	07:00 ~ 17:00	컨퍼런스 개별 세션 참가
		17:00 ~ 19:30	경제교육 현황 및 프로그램 공유 간담회
2023-09-23(토)	UST	08:00 ~ 09:10	Reception(International Economic Education) 참가
		09:15 ~ 13:00	컨퍼런스 개별 세션 참가 ※ 11:30~12:15 KDI 발표
		13:00 ~ 17:00	CEE 담당자 및 경제교육 관계자 면담
2023-09-24(일)	UST	19:30	마이애미 국제공항 출발
2023-09-26(화)	KST	05:30	인천국제공항 도착

II. 주요 사항

1. 미국 경제교육협의회(CEE) 및 제62차 연차총회 소개

- 미국 경제교육협의회(CEE)는 미국의 유아부터 고등학생(K-12)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경제·금융 교육에 주력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임.
 - CEE는 1949년에 설립되었으며, 본부(뉴욕 소재) 및 49개 주(州) 경제교육협의회, 300여 개 경제교육센터로 구성된 미국 최대의 경제·금융 교육 유관 기관임.
 - CEE는 금융문해력 국가표준(National Standards for Financial Literacy)을 토대로 교사 연수 및 학생 대상 직접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다양한 종류의 경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확산에 주력
 - CEE는 매년 9월 말 연차총회를 개최해 교육 관계자들이 경제·금융 교육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션과 소통의 장을 마련
 - 초·중등 교육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경제·금융 교육 사례를 공유하고, 경제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방법과 관련 연구 결과를 공유
 - 또한 2011년부터 미국 이외의 국가 참가자들 간 국제 교류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국가의 경제교육 관계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회가 되고 있음.
- 제62차 연차총회는 컨퍼런스는 플로리다 경제교육협의회(Florida Council on Economic Education) 주관으로 미국 마이애미에서 개최됨.
 - 경제·금융 교육 관련 사례 및 연구 콘텐츠가 포함된 45개 이상의 참여형 세션과 Nan J. Morrison(CEE 대표), Brandon Copeland(NFL 선수, 펜실베이니아대 교수)의 기조연설 등을 통해 경제·금융 교육 분야 전문가들의 경험담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

2. KDI의 발표 내용

- KDI 참가자들은 발제자로 참여해 ‘A Day with the Money Monster: Economic Picture Book Classes for the Developmentally Disabled and Students with Learning Difficulties’라는 제목으로 느린 학습자 대상 경제교육 교수·학습 자료와 수업 사례를 소개
- ‘A Day with the Money Monster’는 KDI 경제정보센터에서 발간한 느린 학습자용 경제교육 그림책 『용돈깨비와 함께한 하루』의 영문판으로, 흥미로운 디자인, 읽기 쉬운 문장, 재미있는 내용으로 경제개념을 쉽게 풀어내어 학습자의 집중력을 높이고 그림을 통해서 글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도록 구성

< 『용돈깨비와 함께한 하루』 개요 >

영문명	A Day with the Money Monster
교육 대상	그림책 수업이 가능한 느린 학습자, 초등학생
교육 과정	2015 개정 초등 교육과정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학습 목표	① 용돈을 계획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필요한 물건을 용돈에 맞게 구입할 수 있다.
수업 차시	총 4차시(차시당 40분 기준)
주요 개념	용돈, 월급, 직업의 선택, 카드

< 영문판 『용돈깨비와 함께한 하루』 >



- 또한 돈을 사용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이거나 느린 학습자를 위한 핵심 경제역량과 경제교육 핵심내용, 성취기준과 성취수준을 고려함.

< 『용돈깨비와 함께한 하루』의 핵심 경제역량 및 경제교육 핵심내용 >

핵심 경제역량	소비(지출) 관리 역량	
경제교육 핵심내용	합리적 소비	
성취기준	자신의 소득 안에서 필요한 물건을 소비할 수 있다.	
성취수준	상	자신의 소득 안에서 합리적인 소비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다.
	중	자신의 소득 안에서 필요한 물건을 소비할 수 있다.
	하	필요와 욕구를 구분할 수 있다.

- KDI 발제자들은 세션 참가자들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고, 『용돈깨비와 함께한 하루』를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읽기 전 (Pre Reading) - 읽기(While Reading) - 읽기 후(Post Reading)’의 3단계로 세분화하여 설명하고, 각 단계에 해당하는 활동을 병행하였음.
- 세션 참가자들이 직접 책의 등장인물 역할을 맡아 함께 그림책을 읽고 활동을 체험하는 방식으로 세션을 운영함.
- 또한 KDI의 설립 과정과 지난 50여 년간 한국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한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KDI가 개발한 맞춤형 경제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공유함.
- 특히 취약계층별 특성과 경제교육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한 『취약계층 대상 경제교육 현황 및 특성에 관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개발된 『우리동네 장보기』, 『잡아라! 금융사기』 등의 맞춤형 경제교육 자료를 소개

< KDI의 발표 현장 >



3. 주요 세션 정리

가. 동시 운영 세션(Concurrent Session)

□ Out of this World: An Intergalactic Roleplay to Explore Commerce, Currency, and Trade

- 캐나다 중앙은행 박물관(Bank of Canada Museum)의 교육 담당자인 Adam Young이 진행한 세션으로, 박물관에서 교육을 진행할 때 활용하는 보드게임 <Trading Planet>에 대해 소개
- <Trading Planet>은 4-8학년 수준의 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며, 보드게임을 통해 거래 수단으로써 화폐의 역할과 편리함, 상품 화폐와 법정 화폐의 차이점, 가뭄이나 노동력 부족 등의 충격이 거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학습할 수 있음.
- 총 3라운드의 게임을 진행하는데, 1라운드에서는 임의로 지정된 소규모 그룹에서의 물물교환, 2라운드에서는 천재지변 등의 사건으로 인해 물자가 부족한 상황에서의 물물교환, 3라운드에서는 화폐를 활용한 거래를 체험하게 됨.

□ How to work with the machines not against them: Using AI in the Classroom

- MRU(Marginal Revolution University)에서 커리큘럼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Matthew Hill이 진행한 세션으로 UCLA, USC 등 다양한 대학에서 AI를 활용해 경제학 강의를 진행한 경험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적용 방안에 대해 소개
 - 여러 가지 LLM(Large Language Model) 중에서도 특히 ChatGPT의 수업 활용 방안에 대해 공유했는데, 같은 질문에 다르게 답변하거나 잘못된 정보도 사실처럼 기술하는 특성 때문에 ChatGPT를 검색 엔진처럼 활용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함.
- 5지 선다형 퀴즈 제작, 평가 기준표(Rubric) 작성, 이미지 제작 등에 ChatGPT를 활용하는 방법과 더불어 프롬프트 입력 방식도 공유
 - ChatGPT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을 역이용해 AI의 답변을 보고 어떤 오류가 있는지 찾아보는 활동을 진행할 수 있으며, AI에 특정 역할(예: 경제학자, 진로상담교사 등)을 부여한 후 학생들에게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해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활용할 수 있음.

□ Discover Economics through the Music Industry

- FEE(Foundation for Economic Education)에서 커리큘럼 개발을 담당하는 Joel Miller와 텍사스주 Westlake High School의 경제(AP Economics) 교사 Susanna McConnell이 함께 진행한 세션으로, 음악 산업의 발전과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다룬 수업 자료 소개
- 첫 번째 수업에서는 기술 발전이 음악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민해 보고, 최근 이슈가 되었던 유명 가수의 콘서트에 대해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한 기사를 읽으며 학생들이 직접 음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고민해 보는 활동에 대해 소개함.
 - AI가 음악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민해 보고, 과거 음악사에 큰 영향을 주었던 다양한 발명품(축음기, 헤드폰, 라디오, MP3 등)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발명품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활동,

월스트리트저널(WSJ)에서 발간한 테일러 스위프트 콘서트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기사를 읽은 뒤 학생들이 직접 미시적·거시적 관점에서 기사를 분석해 보는 활동으로 구성

- 두 번째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노래를 골라 가사에 나온 경제개념을 분석하고, 해당 노래의 발매 수익을 추정해 보는 자료를 소개함.
- 학생들에게 익숙한 대중음악과 음악 산업을 경제교육에 활용해 실생활에 경제 원리를 접목한 자료로, 학생들의 경제에 대한 흥미를 제고시킬 수 있음.

□ From Eggs to Toilet Paper: The Ins and Outs of Economics

- 조지아 경제교육협의회, 사우스캐롤라이나 경제교육협의회, 애리조나 경제교육협의회, 버지니아 경제교육협의회 소속 교사들이 협업으로 진행한 세션으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생활 용품들을 활용해 경제 개념을 익힐 수 있는 수업 사례를 발표함.
- 달걀, 화장지 등 생활 용품에서 찾을 수 있는 경제 원리를 참여형 수업으로 진행함. 특히 인플레이션의 개념을 배울 수 있는 화장지 경매 게임을 체험하며 학생들이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는 경제수업 방식을 소개함.

□ The Price of Thirst: Water Scarcity

- JMU 경제교육센터(JMU Center For Economic Education)의 Lauren Shittlett와 Lynne Stover이 진행한 세션으로, 필수 자원인 물 부족에 대한 경각심과 경제 개념(희소성, 의사 결정, 분배 등)을 접목한 수업 사례를 소개함.
- 지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 확인하기, 물이 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인지 설명하기, 물 부족 국가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문헌책을 통해 이해하기,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원을 어떻게 분배하고 사용해야 하는지 생각하기 등의 순서로 진행함.
- 세션에 참여한 인원들을 4~5명씩 가족으로 묶어 물을 어떻게 분배해 사용할지 논의하는 활동을 함. 시간이 지날수록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점점 줄어들면서 어떤 부분에서 물의 사용을 줄여야 할지 의사 결정하는 시간을 가짐.

□ SmartPath: New Features and Improvements

- UC(University of Cincinnati) 내 Alpaugh Family Economics Center의 명예 전무이사인 Julie Heath가 진행한 세션으로, 재미있는 금융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금융이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고안된 SmartPath를 소개
- SmartPath는 교사가 1~8학년 학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웹 기반 금융·경제 교육과정 관리 및 평가 플랫폼으로, 학생들에게 금융·경제 개념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기 위해 스토리 기반의 커리큘럼, 인터랙티브 게임(interactive game), 영상 등을 제공(스페인어도 가능)
 - 교사들은 SmartPath 플랫폼을 통해 사전·사후 평가를 할 수 있어 학생들이 주요 금융 지식 및 경제 개념을 학습하는 과정과 내용 이해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음.
- 46개주의 교사들과 2백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SmartPath를 사용하였고, SmartPath 이용 후 학생들의 지식이 평균 30~35%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음.

나. 포스터 세션(Poster Session) 및 부스

□ BEA(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의 사업 소개

- BEA는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의 산하기관으로 미국의 GDP, 국제 무역 통계뿐만 아니라 각 주의 다양한 경제 통계를 제공함.
- BEA가 측정·추산하는 다양한 경제 통계와 연계한 학생용 활동지, 퀴즈, 교사를 위한 수업 가이드 등을 'BEA in the Classroom' 웹페이지(bea.gov/classroom)에서 제공하고 있음.

□ GEEA(Global Economic Education Alliance)의 국제 교류 프로그램 소개

- GEEA는 활동 중심(activity-based) 경제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있는 비영리조직으로 미국 전역의 교사와 교육자를 대상으로 한 워크숍과 국

제 교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해당 기관에서는 타 국가의 교사들과의 협업으로 'Economics and Financial Literacy Workshop'과 'Teacher Study Tour'를 실시해, 외국의 학교 현장을 방문하고 담당 교사와 면담하는 등 미국 밖의 경제교육 현황을 파악하며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음.

□ Aflatoun International의 사업 소개

- Aflatoun International은 네덜란드에 기반을 둔 비정부기구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바탕으로 지속가능 개발 목표(SDGs)의 달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해당 기관에서는 300여개가 넘는 기관과 국제 네트워크를 형성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금융교육 자료 및 커리큘럼 개발, 교사 연수 또는 국제 컨퍼런스 등의 행사도 실시함.
- 특히 개발도상국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금융 교육, 기업 가정신 교육, 직업 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매년 네덜란드 위트레흐트(Utrecht)에서 Global Social and Financial Skills Conference를 개최하며, 금융교육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유아교육, 21세기에 필요한 기초 교육(기후, 디지털 기술 등), 성인기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 청년 창업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룸.

□ ECONIFUL의 사업 소개

- ECONIFUL은 학생들이 일상에서의 의사 결정, 직업 활동, 시민 생활 등에서 경제 원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경제교육 프로그램과 커리큘럼을 고등학교 교사에게 제공하고 있음.
- 경제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경제교육 성공 사례 공유 등 경제교육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는 교사를 대상으로 EconHero를 선정하고 ECONIFUL 웹사이트에 게시

□ TideMill의 BEAT THE FED 게임 소개

- 뉴욕에 위치한 TideMill은 경제 및 금융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4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연차총회에서는 금융 시뮬레이션 게임인 'Beat the Fed'를 소개함.
- 'Beat the Fed'는 대공황 시기 미국의 실제 경제통계를 바탕으로 구성된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학생들은 매 라운드마다 제공되는 경제 뉴스를 읽고 어떤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실시해야 할지 결정하게 됨.
 - 웹사이트(<https://tidemillgroup.com/games>)에서 직접 체험 가능

□ Invest in Girls의 사업 소개

- CEE의 산하 기관인 Invest in Girls(IIG)는 여성 청소년 및 청년들이 금융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금융 관련 분야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음.
- IIG의 설명에 따르면 여성 청소년들은 금융 지식의 부족과 그로 인한 자신감 결여로 인해 금융 분야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각종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의 금융 이해력을 제고시키고 향후 소득 및 부채 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함.
 - 10대 여성 청소년들의 재정적 역량과 자신감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여성 금융 전문가와 연결해주는 멘토링 서비스를 지원함.

Ⅲ. 시사점

-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경제교육 전문가들이 모여 경제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를 소개하는 CEE의 연차총회에 참석하여, 경제교육의 동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음.
- 다양한 경제·금융 교육 수업 사례를 공유하면서 KDI 경제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에 접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었음.
 - 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경제수업에 활용해 학생들이 문답을 주고받으며 경제개념을 학습할 수 있다는 점, 평가 기준표나 형성평가 제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교사 또는 강사 연수에서 소개
 - 실생활과 가까운 소재를 활용하여 경제 개념(원리)에 접목함으로써 학습자가 경제 이론이 어려운 것만이 아니라 실용적인 학문임을 느낄 수 있게 함. 해당 수업 사례를 참고하여 일상에서 찾을 수 있는 쉬운 예시들을 교육 자료 개발 시 활용할 예정
 - CEE의 연차총회와 유사한 특성을 갖는 <경제교육 컨퍼런스>(KDI 주최)에서도 우수 경제 교사·강사를 위한 시상식을 개최하여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
- 또한 KDI가 연차총회에서 소개한 느린 학습자 대상 경제교육 교수·학습 자료인 『용돈깨비와 함께한 하루』가 다른 국가 참가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음으로써 향후 KDI 경제교육 콘텐츠 국외 확산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미국의 CEE 연차총회뿐 아니라 네덜란드의 Aflatoun International이 주최하는 ‘Global Social and Financial Skills Conference’ 등 다양한 국제 교류의 기회가 있는 만큼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및 협력 기반 구축이 필요
 - 국내외 경제교육 전문가들과 경제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에 관해 지속적인 소통 및 관리를 통해 경제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